

[전시 따라잡기] 시간의 층위 위에 씨앗을 심다...갤러리 팔조 이춘영 개인전

✎ 황인옥 | ㉠ 승인 2026.07.13 11:10

피그먼트의 중첩과 기다림으로 완성한 자연의 순환
전시는 31일까지



이춘영 작가가 자신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팔조 전시장에 걸린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인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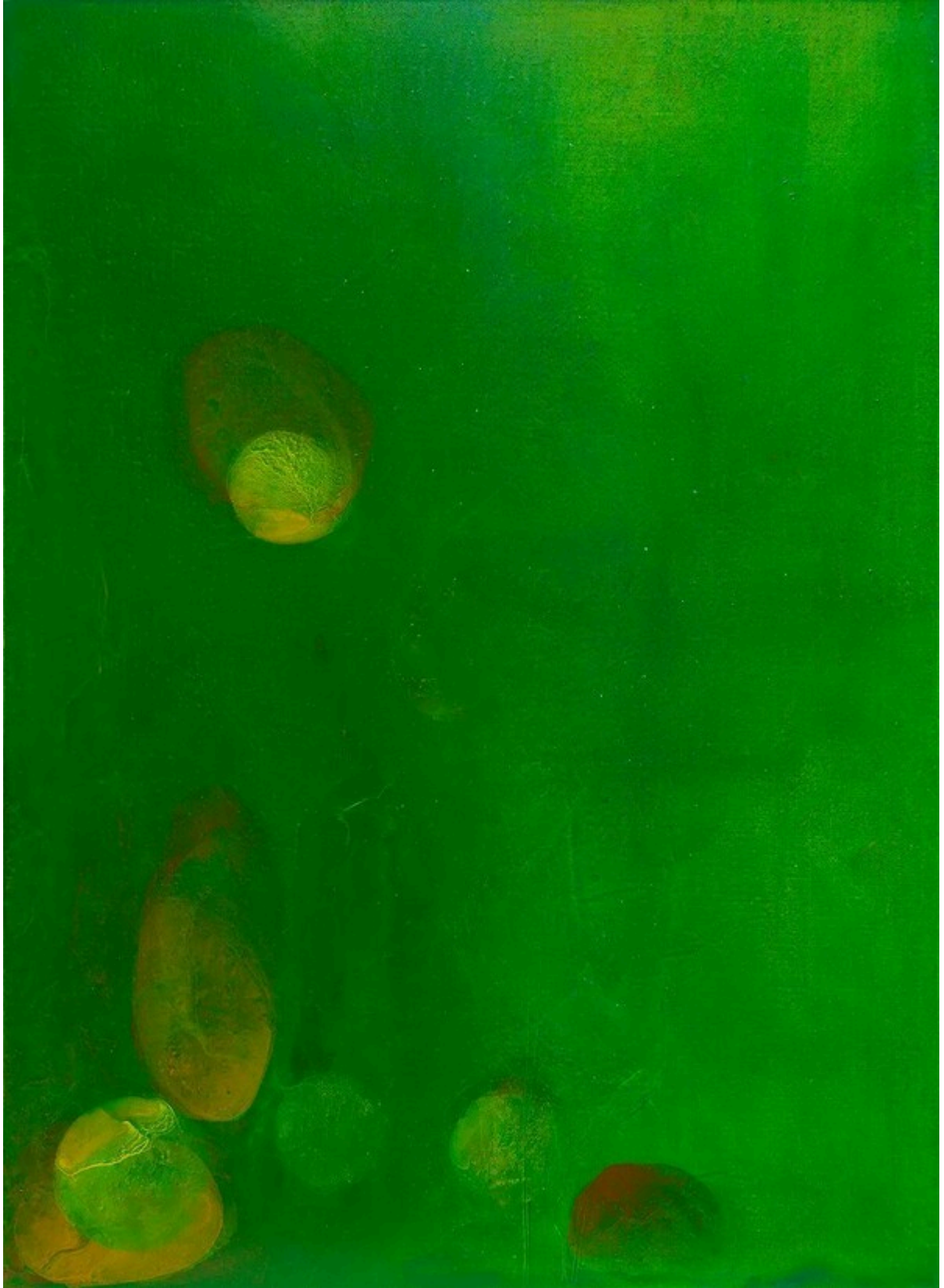
'건너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강을 건너고, 계절을 건너고, 삶의 한 시절을 지나 또 다른 시간으로 들어서는 일이기도 하다. 예술이라고 다를까 싶다. 하나의 작품은 뛰어난 기법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남길 때 오래 기억된다.

지난 3일 갤러리 팔조에서 개막한 이춘영 개인전 'Crossing(건너가기)'는 작가가 오랜 시간 자연을 관찰하며 축적해 온 사유가 오늘의 화면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중앙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가 세상을 자연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는 인도 국립 비스바바라티대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하면서다. 인도에서 반복했던 산책과 반얀트리 아래에서 머문 시간, 흙과 먹을 다루던 경험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자연은 그에게 더 이상 스쳐가는 풍경이기보다 생명과 시간, 관계가 서로 얽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에서 시작된 질문이 현재의 작업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책은 그에게 가장 느린 사유로 이끄는 매개다. 그는 거창한 영감이나 특별한 사건보다 산책을 통해 깊은 사유의 세계로 빠져든다. 걷는 동안 나무를 만나고, 흙을 밟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시간, 그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의 작업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춘영 작. 갤러리 팔조 제공

그의 화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깊이감이다. 화면은 색의 겹침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 깊이감 있는 표면을 획득한 데는 제작 방식이 한몫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색의 겹침이 진행돼 있다.

재료는 피그먼트(안료) 가루다. 피그먼트에 미디엄을 섞어 자신만의 물성을 만든 뒤 화면 위에 붓는 것으로 작업이 출발한다. 화면 위에 던져진 물성은 붓으로 펴기도 하고 캔버스를 기울여 물감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충분히 마르기를 기다린다. 물감이 마르면 다시 안료를 올리고, 마르기를 기다린다. 이런 과정은 수십 번, 많게는 백 번이 넘게 반복된다.

반복되는 작가적인 행위는 시간의 축적을 의미한다. 작가에게 시간은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재료다. 안료가 마르고 다시 쌓이는 반복의 과정 속에서 화면에는 색채뿐 아니라 기다림과 침잠의 시간이 켜켜이 축적된다. 그 시간은 작가의 의도와 재료의 우연이 만나 형성한 새로운 질서다. "결국 저의 회화는 '그려진 화면'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영 작. 갤러리 팔조 제공

수많은 재료들 중에 왜 피그먼트였을까? 피그먼트는 이미 완성된 물감보다 훨씬 원초적인 재료다. 색 자체가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엄과 섞이는 방식, 농도, 건조되는 시간에 따라 매번 다른 표정을 만들어낸다. 우연성의 낙차가 완성된 물감보다 드라마틱 하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바로 그런 우연성이 주는 효과 때문에 피그먼트를 선택했고, 작업 과정에서도 물성의 우연성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료가 스스로 반응하도록 기다린다. 색이 화면 위에서 스며들고, 가라앉고,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흔적이 화면에 남는다. 이는 그의 화면을 자연 속 흙이나 바위의 결처럼 깊고 묵직한 질감으로 이끄는 비결이다.

"피그먼트를 사용한 것은 자연처럼 변화하는 시간을 화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첩은 그에게 화면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수없는 중첩으로 구성된 그의 화면은 색의 어우러짐보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집적소에 가깝다. 한 번의 붓질 위에 또 다른 시간들이 포개지면서 화면은 마치 지층같은 깊이로 점철된다.

중첩으로 획득한 바탕은 작가에게는 작품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는 형상을 만들기에 앞서 화면이 먼저 충분한 시간을 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안료를 올리고, 말리고, 다시 덧칠하는 지난한 반복은 바탕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바탕이 살아 있어야 그 위의 이미지도 살아납니다."

이춘영 작. 갤러리 팔조 제공

바탕에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에게 바탕은 생명이 싹트는 토양과 다르지 않다. 흙처럼 숨 쉬고, 시간이 스며드는 장소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오랫동안 그는 화면 위에 닳나무 뿌리를 붙였었다. 닳나무 뿌리는 자연의 결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재료였고, 뿌리들이 서로 얽힌 화면은 생명체의 조직처럼 호흡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닳나무 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씨앗이 대신한다. "생명의 시작을 화면 안으로 들여오고 싶었다"는 것이 씨앗을 채택한 이유였다. 닳나무 뿌리가 이미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면, 씨앗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을 품고 있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며,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날 미래가 들어 있다.

"한 알의 씨앗 속에는 숲이 들어 있습니다."

"숲을 품은 씨앗"이라는 그의 말은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화면 곳곳에 흩뿌려진 씨앗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이며 생성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작가는 씨앗을 통해 완성된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성될 자연을 화면 안에 심는다.

작품을 무엇인가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의 한 장면처럼 여기는 그의 인식은 그의 자연관과 맞닿아 있다. 새싹은 자라고 꽃은 피고 열매를 맺은 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생성과 소멸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이다. 그가 물감을 올리고 말리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복은 노동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입니다."

이춘영 작. 갤러리 팔조 제공

이번 작업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태는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겹쳐진 흔적 속에서 일부만 드러난다. 이는 작가가 말하는 자연의 방식과 연결된다. 명확성을 차단하는 그의 화면은 안개가 산을 가리기도 하고, 낙엽 아래 새로운 싹이 숨어 있기도 하며, 겨울이 지나야 봄이 드러나는 자연의 방식을 닮아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남겨 둬으로써 관객은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볼수록 숨겨져 있던 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그가 발견한 개념은 순환론이다. 이번 제목 'Crossing'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닥나무 뿌리에서 씨앗으로 재료는 변화했지만 생성, 소멸, 축적, 비움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인식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되며, 숲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품어내듯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현재를 건너 미래로 나아간다는 개념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건너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의 시작입니다.”

이춘영은 자연을 통해 순환론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그먼트를 수없이 중첩하고, 시간을 기다리며, 화면 위에 씨앗을 심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다. “변화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씩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전시는 31일까지.

황인옥기자



황인옥